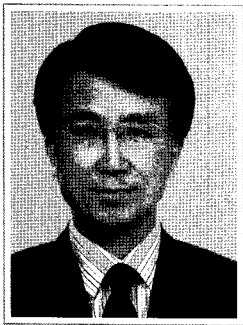


# 제16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16<sup>th</sup> PBNC)대회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회의

장 호 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국제협력실장



## 제16차 PBNC 대회 개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태평양원자력 협의회(Pacific Nuclear Council : PNC)가 매 2년마다 개최하는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 PBNC)의 제16차 대회가 금년에 일본 아오모리시

시내에 위치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속 가능한 원자력의 미래를 향한 태평양연안국의 협력」이라는 대회 주제(Conference Theme) 하에 개최된 이번 제16차 PBNC 대회에는 주최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호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남아프리카 등 18개국에서 800여명이 참가하여 총 408편의 기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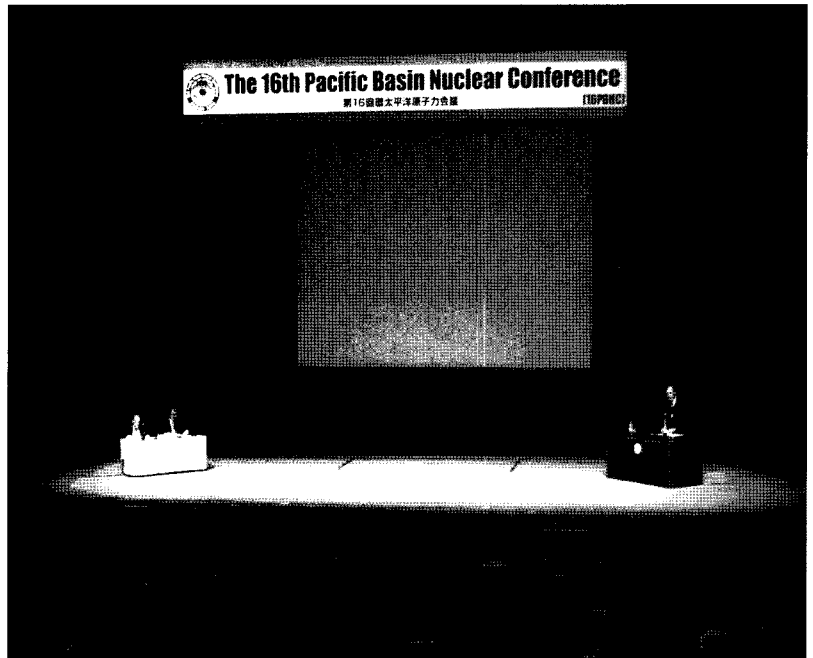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두산중공업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한전기협회,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관련기관 및 대학에서 60여명이 참가하여 총 5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최국인 일본 다음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PBNC 대회의 일정은 10월 13일(월) 저녁에 환영 리셉션이 열렸고 다음날인 10월 14일(화)부터 개최식과 기술 세션이 시작되어 10월 17일(금)에 폐막되었으며 10월 18일(토)에는 산업 시찰과 관광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번 PBNC 대회 프로그램의 특색은 Plenary Session, Keynote Session, Technical Session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Plenary Session은 PNC 회원국들의 추천을 받은 특별 연사로 구성되었고 Keynote Session은 PNC 비회원국들을 포함한 초청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Plenary Session의 특별 연사로 10월 14일(화) 오전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김종신 사장을 대신하여 박기철 전무가 「한국 원자력산업의 2030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고 10월 16일(목) 오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명승 원장이 「한국의 중장기 원자력 연구 개발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또한 Keynote Session의 특별 연사로는 10월 15일(수)에 두산중공업(주)의 김태우 부사장을 대신하여 박석빈 상무가 「한국 원자력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박군철 교수가 「한국의 대학교 원자력교육과 인력 양성 개발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종화 박사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듐냉각고속로 및 개량형 핵주기 공정의 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제16차 PBNC 대회 전경

10월 16일(목)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박기철 전무가 「한국의 신형 원전 설계 및 건설 관리 기술」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아·태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의 사업담당관 이재설 박사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원자력 기술 응용 협력을 위한 RCA와 지역사무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편 10월 13일(월) 개최된 환영 리셉션에서는 축하 공연으로도호쿠전력(주)의 축제 동호회 직원들이 일본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이며 아오모리시의 전통 축제인 네부타 축제의 춤(Haneto Dance)을 공연하여 참가자들의

여흥을 돋우었다.

네부타는 가부키나 신화를 주제로 한 인물 또는 사물 모습의 대형 인형을 종이로 만들어 커다란 나무나 대나무로 엮은 뼈대에 붙이고 안에 등불이나 조명을 설치한 엄청난게 큰 등롱을 말한다고 한다. 네부타 축제는 일본의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 중의 하나로서 2001년에는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10월 14일(화) 오전에 개최된 개회 세션에서는 먼저 PBNC 대회 주관 기구인 PNC의 Clarence Hardy 회장과 PBNC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토호쿠 전력주식회사의 타카하시 히로야키 사



PBNC 대회 만찬에서 PNC 회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원산 부회장)

장의 개회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아오모리현의 지사인 미무라 신고 씨 및 통상산업성(MITI) 국장, 문부과학성(MEXT) 부국장 등의 정부 기관 인사들의 환영 인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원자력 위원회의 위원장인 콘도 선수케 박사(전 도쿄대학교 교수)가 「태평양지역의 원자력협력 -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또한 이번 개회 세션에는 아오모리현의 무쯔시 시장과 롯카쇼 무라 촌장 등 주변 지역의 지방 정부 리더들도 참석하여 소개되었다.

또한 10월 15일(수) 저녁에는 대회 만찬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본 행사에서는 그간 2년간 PNC 부회장으로 활동하셨던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한국원산 부회장)의 PNC 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대회 종료 후 10월 18일(토)에 개최된 산업 시찰은 3개 코스로서, 일본원연(주)(JNFL)가 운영하고 있는 롯카쇼무라 핵연료주기 시설, 토호쿠전력(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히가시노리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전원개발(주)(J-POWER)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마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부지 견학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PBNC 대회에는 원자력산업 전시회도 병행 개최되었는데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에서 19개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두산중공업(주)와 원자력기술기업연합 등 2

개 기관이 참가하였다.

원자력기술기업연합은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AtomXport)의 지원을 받은 여러 원자력 기술 중소기업들이 연합하여 이번 PBNC 전시회에 합동으로 참여한 브랜드를 말한다.

차기 17차 PBNC 대회는 2년 후인 2010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서 10월 17일(금) 폐회식에서 차기 PBNC 대회 주최 기관인 멕시코원자력학회 대표가 차기대회를 소개하였다.

PBNC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Biennial Conference로써 차기 대회 개최국은 보통 4년 전에 PNC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PNC 회원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회(주)가 1985년 제5회 대회와 2000년 제12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PNC 회장국으로서 한국원자력학회와 함께 2012년 제18차 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PBNC 대회 개최 장소였던 아오모리시 문화회관은 현 내에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얻어진 지원금으로 설립된 대형 회의 시설이라고 하는데 개회 세션이 개최된 Main Hall은 내부가 너무 넓어서 많은 참석자 수에도 불구하고 빈 좌석

이 많아 철 지난 바닷가처럼 쓸렁해 보였다.

또한 1인당 8만엔이라는 고액의 등록금뿐만 아니라(만찬 비용은 만오천엔으로 별도 책정되었음)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두산중공업(주)를 재정 지원 스폰서로 영입하였고 그 외에도 일본 국내 기관들과 프랑스 AREVA, 캐나다 AECL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많은 재정 후원을 받았음에도 참가자들에 대한 접대가 소홀해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대회기간 중 개최 장소와 주요 호텔 및 아오모리역까지 연계하여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 스케줄을 프로그램 책자에 안내한 것은 참가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대회 첫날인 10월 14일 화요일에 개최된 개회식 시작 시간이 오전 9시 30분임에도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오전 9시 30분부터 운행케 한 것은 옥의 티로 보였다.

### PNC 회의

PBNC 대회 개최에 앞서 10월 1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늦



제16차 PBNC 대회 환영리셉션에서의 네부타축제 춤 공연 모습

게까지 PBNC 대회를 관장하는 태평양원자력협회의(PNC) 회의가 개최되었다.

PNC는 태평양 지역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85년에 태평양연안국원자력협력위원회(PBNCC)의 명칭으로 창설된 후 그 기능을 확대 조직하여 1988년에 PNC로 개정된 국제 기구이다.

현재 회원국과 회원 기관으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미국원자력학회 라틴아메리카지부) 등 11개국의 15개 기관(원자력학회 및 협회)이 가입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원자력학회가 가입 신청을 하였고 태국원자력학회는 준회원(observer)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국의 회원 기관

으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의 2개 기관이다

PNC 회의는 1년에 2회(춘계 및 추계) 개최되고 있으며 PBNC 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PBNC 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고 있다.

PNC 조직은 회장과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으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모두 2년, 특히 선출된 부회장은 임기 만료 후 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또한 PNC 사무국은 전에는 회장국에 설치하였으나 후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어권 국가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여 현재 미국원자력학회(ANS) 사무실에 별도 PNC 사무국을 두고 있다.

그간 PNC 부회장으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인 강창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16차 PBNC 대회 만찬 전경

선출되어 활동하여 오다가 이번 PBNC 대회 만찬에서 PNC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PNC 부회장은 멕시코 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하였던 멕시코대학교의 주앙 루이 프랑스와 (Juan Luis Francois) 교수가 선출되었다.

본 PNC 회의에는 회원국 대표 17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PNC 회장)와 PNC 회원 기관 대표인 방국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상근 부회장과 이종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그리고 PNC 신행로연구분과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및 필자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PNC 회의에서는 차기 PNC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결과,

PNC 활동 및 사업 보고, PNC 현행 및 신규 과제 검토, PNC 분과위원회 및 전문 그룹의 활동 보고, PBNC 대회 준비 현황 보고 등 다양한 안건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이어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PNC 신행로원자로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신행로원자력시스템워크숍(WANPS)이 개최되었다.

PNC 연구분과위원회에는 신행로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홍보, 원자력 기술기준 등의 위원회(Working Group & Task Group)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간 일본의 참여도가 높아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

는 등 태평양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PNC 회장국으로서 향후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많은 전문가들이 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차기 PNC 춘계회의는 국제적인 원자력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회원 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9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세라톤위커킬 호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제24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KAIF/KNS Annual Conference)와 연계하여 4월 8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PBNC 대회에서 한국측 참가자들은 방국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주최로 아오모리시내 음식점에 마련된 만찬 간담회에 함께 모여 각자 소개와 함께 PBNC 대회 참가를 통한 소감과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특히 젊은 참가자들은 이번 참가자 모임에 대해 평소에 이름만으로 접하던 우리나라 산·학·연의 대선배님들을 만나서 원자력계의 발전과 단결을 위한 좋은 덕담과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언급하면서 큰 의미

를 부여하였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회의의 참가시 우리나라 참가자들을 파악 및 한자리에 초청하여 국제회의의 참가를 통한 세계 원자력계의 동향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 맺음말

아오모리시는 인구 약 30만명의 작은 도시인데 사과 재배와 가을 단풍 및 유황 온천 등으로 유명하며 특히 롯데쇼부라 재처리 시설을 유치하고 나서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오모리 사과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질과 맛이 매우 좋음에도 공항에서 검역관계로 반출이 되지 않는 까닭에 그 틈새시장을 노려 「호시 링고」라는 사과를 말린 스낵 등 여러 가지 사과 가공 식품이 개발되어 방문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 외에도 특산품인 참치(마구로), 털게, 조개(가리비) 등의 해산물과 이들을 가공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식품과 아오모리 전통술 등을 개발하여 판매수입을 증



16차 PBNC 대회기간 중 개최된 PNC 회의 전경

가시킴은 물론 그러한 특산물들의 판매를 통해 아오모리 도시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아오모리시는 또한 현 내에 위치한 롯데쇼부라 재처리 시설들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옴에 따라 작은 도시임에도 인천공항에서 직항로가 생겨났으며 한국어로 된 관광 홍보 책자는 물론 시내 큰 음식점의 메뉴에도 한국어로 소개가 되어 있었다. 즉, 원자력 시설 유치로 인해 도시가 더욱 유명해진 것이다.

세계 각국은 현재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광 유발 효과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나 일본 교토 의정서와 같이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도시가 유명해진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도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지역 내에 원자력 시설과 같은 중요 시설들을 유치하여 정부나 시설 운영 기관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를 발전시킴은 물론 지역 특산품, 전통 문화 및 풍속 등 지방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많은 외국 방문객들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